4면에서 계속

高度가 높다 · 폭이 넓다 · 부피나 덩치가 크다 따위로 말할 줄을 사람들이 다 모르게 되고 있다. 영어의 대체 수입에 여념이 없어 이러한 우리말 어휘의 구사와 개발에는 짜증이나 나는 것이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도처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금표禁表에 ‘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이라 쓴 것을 본다. 순하게 ‘ 이곳은 군사보호지역 ’이라거나 한자어에 그리 집착할 테면 ‘ 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이라고라도 해서 앞의 ‘ 지역地域 ’을 뒤에서는 ‘ 구역區域 ’으로라도 바꿔야 함을 모른다.‘ 우익단체들의 항의가 쇄도하여 한때 우익단체들의 차량들이 몰려들어 경찰들이 차량통제에 나섰다. ’ 무작위로 아무데서나 집어본 우리의 신문기사이다. 나더러 이 기사를 쓰라 한다면‘ 여러 우익단체의 항의가 쇄도하여 한때 그 차량이 몰려들자 경찰이 통제에 나섰다 ’고 써서 그 상황을 날렵하게 전하고 싶었을 것같다. 방송 기자가 현장에 나가면 영상에 뜨자마자 ‘ 이 시장은 어떠어떠한 시장입니다 ’하고 동의어 반복을 굴리면서부터 입을 뗀다. 구습口習이 된 것이다. 죽어도‘ 이곳은 어떠어떠한 시장 ’이라거나 ‘ 이 시장은 어떠어떠한 곳 ’이라 하지를 않는다. 방송 경기 해설자가 ‘ 지금 상황은 저 선수가 낫아웃 상황에서 1루주자가 진루한 상황에서 2루주자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3루로 진루하려는 상황에서 1루주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2루에서 태그하는 상황에서 쎄입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은… ’이라는 식으로 한도끝도 없이 ‘ 상황 ’만을 반복하다가 몇 시간의 중계방송을 마친다. 어떤 재해 현장에 나온 방송 기자가 ‘ 지금 현장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 ’ 또는 ‘ 참혹한 상황 ’이라 입을 뗀다. 지금 현장 상황은 매우 어렵다거나 참혹하다, 또는 지금 현장은 매우 참혹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 상황 ’을 한번만 써서 말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일가족 주말 나들이를 나온 젊은 가장이나 아내가 ‘ 날씨가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빠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방송 기자의 질문에 ‘ 너무 ’투성이 대답을 쏟아낸다. 한 문장에서 ‘ 너무 ’를 여섯 번 반복하는데 그 중 한두개만 ‘ 매우 · 아주 ’ 따위로 섞어 넣어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것을 누가 길들이고 가르쳐야 하나. 더구나 ‘ 너무 ’가 부정적인 용례의 부사임에랴. 지난날 사춘기 여고생이 방송 마이크를 갖다 대면 수줍고 당황하여 헛웃음을 간투하며 ‘ 굉장히…굉장히 ’를 연발하다 말았다. 당시 그들 세상에서는 이‘ 굉장宏壯히 ’라는 괴물 부사가 만연하여 시도때도 없었다. 예쁘고 아름다워도 굉장히고 어리고 가냘퍼도 굉장히며 눈곱만큼 잘하거나 못해도 굉장히요 지극히 미세해도 굉장히여서 세상 모든 사물이 다 굉장히 투성이였다. 이‘ 굉장히 반복 ’의 악습이 어느날엔가 여고생 사회에서 잠적해 없어졌다.

우리말이 고와지려면 이런 동의어 반복의 입버릇이 자제되어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달변이 현하懸河와 같음을 모르는 이가 적다. 그러한 그도 부사 ‘ 말하자면 ’을 발어사發語詞나 간투사間投詞처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이도 이처럼 가지고 있게 되는 각자의 입버릇은 자제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인의 구습이 불특정 다수에게도 효빈되고 국민 전체로 만연된다면 이는 큰 병통이 되는 노릇이다. 옛적 내가 생장한 고장에 ‘ 몰랑영감 ’이라는 별명인이 있었다. 그는 조사 ‘ 설랑은 ’을 ‘ 서몰랭이 ’라 반복하는 구습으로 이런 별호를 얻었다. 이런 별호까지 불러 그를 해학한 것은 사람들이 이리 잘못된 표현을 효빈하지 않으려는 고유의 항체抗體에서 말미암는 언어의 자정능력이었다. 그래서 그 몰랑영감 혼자만 ‘ 서몰랭이 ’를 반복하고 갔지 다른 아무도 이를 ‘ 벤치마킹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이 시설물은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하는 식으로 써놓은 표지판을 더러 보기 어렵지 않다.‘ 이 시설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 하면 27자가 18자로 준다.‘ 시설물 ’이 체언과 용언에서 거듭 쓰인 것 하나를 대명사격 의존명사 ‘ 것 ’으로 바꾸고 하나 남은 것에서도 첩자 ‘ 물 ’을 떼어냈으며,‘ 교통의 소통 ’에서 동의어 하나를 빼 ‘ 소통 ’을 없애고 ‘ 설치한 시설 ’의 동의어 반복에서도 ‘ 설치한 ’을 죽인 결과이다. 그래도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에서는 장황히 더듬어 부연하는 전자보다 후자가 신속하고 명료하다. 전자에 ‘ 시설施設 ’이면 되던 것에 왜 ‘ 물物 ’이 덧붙는가. 경찰은 경찰관이나 경찰자, 판검사는 판검사자, 장관 · 대통령도 장관자 또는 대통령인으로 자者나 인人을 덧붙여대고야 말 날이 올 것 같다. 경복궁에 가면 ‘ 전나무는 목재재질이 좋아서 ’따위로 수목에 붙인 패를 본다. 목재재질을 한자로 쓰면‘ 목재재질木材材質 ’이다. 한자를 조금만 알아도 이를 ‘ 木質 ’이나 ‘ 材質 ’로 쓸 것이다. 정 무엇하면 ‘ 木材質 ’이라 해도 材가 겹침은 면할 것이다. 제품품질製品品質 · 원료재료原料材料 식으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지기수이다. 거리의 간판에 ‘ 중화요리中華料理 ’로 너무 오래 익었던 것이 ‘ 중국요리전문점 ’으로 석자가 늘더니 어디선가‘ 중국요리전문음식점 ’으로 다섯 자가 늘고 있다. 요리와 음식의 동의어를 상호商號에까지 겹치지 못해 안달인 것이다. 심지어 ‘ 경제經濟가 경제적經濟的 ’이라는 따위 표현을 예사로 쓴다. 최소한 경제가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라고나 해야 말다울 터인데 우리 사람들의 어휘력 경색이 여기에 이른 것이다. 어휘력이 결핍되니 한 낱말을 알면 그것만 무한 반복해대는 것이다. 한국인 뇌리에서의 이같은 어휘력 전멸 현상은 무한한 조어력과 영상력을 가진 한자를 폐지한 데서 말미암은 재앙이다.

한자를 폐지했으면서 한자어는 더 기승을 부리듯 남용한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고 해학이다. 현대 과학 · 선진 기술 등으로 앞에 붙던 관형사가 첨단尖端으로 바뀌어 첨단 기술 · 첨단 시설 · 첨단 논리 등으로 ‘ 첨단 ’이 광범히 쓰이게 되었다. 첨尖이 뾰족한 끝이고 단端이 또 끄트머리여서 둘이 겹쳤으니 더 나갈래야 나갈 데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더니 잠시만에 거기에 최最라는 접두어가 덧붙어 첨단은 죽고 최첨단만이 횡행한다. 원래 최나 첨 하나로 족할 것을 두 음절 이름을 만드느라 한 차례 겹쳤으면 족할 것을 최를 덧대어 중첩자를 만들어 말의 날을 넘긴다. 다음에는 거기에 ‘ 초超 ’를 덧대어 초최첨단이라는 3중첩자를 만들 셈인가. 부상負傷은 상함을 업거나 진다는 뜻의 명사이다. 이를 동사화할 때 반드시 당當을 접미하여‘ 부상당하다 ’로 한다. 지금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 부상하다 ’로 옳게 쓰는 이가 없다. 이‘ 당하다 ’병이 여간 아니어서 조만간 압사壓死하다 · 횡사橫死하다 · 자연사自然死하다 따위도 다 당하는 게 될 것 같다. 강탈强奪 · 폭행暴行 · 강간强姦 따위 받는 쪽이 불가항력인 때에만 당하다가 되어야 한다. 살해殺害 · 격리隔離 · 철거撤去 · 처벌處罰 · 처리處理 · 감금監禁 · 기각棄却 따위는 다 ‘ 되다 ’가 접미하여 받는 쪽의 표현이 된다. 여기에도 꼬박꼬박 ‘ 당하다 ’를 접미하여 우리의 순한 말을 다 죽인다.

초등학생이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면서 전같으면 ‘ 우리 둘이요 ’ 하고 말했다. 지금은 유치원생도 앵무새처럼 ‘ 우리 두명 ’이라고 한다. 사람이라고도 않고 반드시 명名이라고 한다. 수효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우리가 명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일제 치하에서부터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일제 잔재이고 원래 그에 해당하는 우리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말의 사람을 지칭하는 수효 불완전명사는 그냥 사람이라거나 인人이다. 그래서‘ 105인사건 ’이니 ‘ 10인위원회 ’니 하였고 ‘ 세 사람 · 다섯 사람 · 열 사람 · 백 사람 · 천 사람 ’이었다. 그나마 앞에 사람임을 지칭하는 말이 선행되면 그냥 ‘ 하나 · 둘 · 셋 ’이었다. 그래서 ‘ 우리 둘 · 사람 다섯 ’이 되니 ‘ 둘이서 한마음 ’이나 ‘ 일곱이 힘을 합쳐 ’ 따위로 말했다. 지금 아이들부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 하지 않고 반드시 ‘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고 하고 말로 먹고 사는 방송언론인이 모두 대통령도 ‘ 한 명 ’이라 하고 양국 정상도 ‘ 두 명 ’이라 한다. 중국 고대에서부터 명名을 사람 수효의 의존명사로 쓴 예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까지 이를 수의존명사로 쓴 용례를 찾기 어렵다. 일명一名 · 이명二名 하면 오히려 앞에 서수序數를 만드는 접두어 제第가 생략된 단축형으로서 지금의 1등 · 2등의 뜻으로 쓰였다. 지금 신문을 펼치면 ‘ 인구 4천만명 · 인구 5백만명의 도시 · 군병력 3만명 · 연인원 백만명 ’ 식으로 그 표제에서부터 ‘ 명 ’을 때려 붙이느라 여념이 없다. 왜 사람들이 우리말은 생략되고 단축된 부분만 환장을 하여 되찾아 잘못 번연繁衍시킴에 중독이 되어갈까.

90수년 전 우리 인구가 남북을 합쳐 2천만일 때 선각자들은 ‘ 2천만 동포 여러분 ’이라 했다. 그 후 해방전후 겨레를 기리는 노랫말에서도 ‘ 우리 3천만 ’이었다. 다 2천만 명 ’ 동포라거나 우리 3천만 명 ’이라 하지 않았다. 삼국지三國志의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曹操의 백만대군百萬大軍이 궤멸되고 살수대첩薩水大捷의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 양제 隋煬帝의 백만대군을 물리칠 때도 다 백만 명 ’대군이 아니었다. 권율權慄 도원수가 군사 2천8백으로 3만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幸州大捷에서도 군사 2천8백 명 ’이나 3만 명 ’ 왜군이 아니었다. 월남越南에 한국군 5만이 파견되고 한국에 미군 2만이 주둔하는 따위도 5만 명 ’이나 2만 명 ’이 아니었다. 사람 서넛이거나 인부 여남은일 때도 서너 명 ’이나 여남은 명 ’이 반드시 아니었다. 돈도 액수가 많아지면 수의존명사 ‘ 원 ’이 떨어져나간다. 1원에서부터 천만원까지는 ‘ 원 ’이 붙는데 1억이 되면 사람의 꽁무니에서 꼬리가 퇴화하듯 ‘ 원 ’이 떨어져나간다. 이리 되면 ‘ 억 ’ 뒤에서만 ‘ 원 ’하나가 떨어져나가는 게 아니라 1억5천만원 등에서 ‘ 만 ’까지도 떨어져나가 1억5천 또는 1억3천5백 · 1억7천650 따위로 말한다. 이렇게 수의존명사를 퇴화시키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나 돈에 한정된다. 물건을 세는 단위 의존명사 개個나 짐승 또는 물고기를 세는 마리 따위는 생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꼭꼭 ‘ 명 ’ 의존명사를 붙이면 그 인격을 홀하게 보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가원수들을 한두명 몇 명 따위로 부르지 않았다. 이처럼 단축 · 생략되는 것은 언어의 관용慣用이고 진화이다. 지구상에 하고많은 어족語族 가운데서 제 겨레말의 진화를 이처럼 막지못해 안달복달인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 꺼풀이 눈에 있으면 눈꺼풀이 된다. 그 눈꺼풀이 둘로 주름지면‘ 쌍눈꺼풀 ’이 아닌 쌍꺼풀이 되어 ‘ 눈 ’이 생략된다. 이 생략된 ‘ 눈 ’같은 말을 다 되살려 쓰려 하면 우리말은 어찌될까.‘ 두 배 ’도 그냥 배나 곱절이면 된다. 이두吏頭로 갑절甲折이라 할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 두 배 ’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탄이다.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전문
홍보형 · 기업형 · 쇼핑몰
ES정보네트워크
WWW.CONWEB.CO.KR
Conweb
대표權重穆
서울광진구구의3동테크노마트25층3호
전화: 02)3424 - 3992 · 016 - 9309 - 1483